

## 철학사입문코스Ⅳ

### 제12강 동북아의 사상

#### 제12강 1교시

##### ◆ 심(성과 정)

주희는 정이를 잇고 있으나 정이의 유심론적 성향을 비판하고 장재와 정이를 종합하고자 했다. 주희는 일단 心을 자연주의적-경험주의적 토대 위에서 논하면서도 性을 조심스럽게 변별해내는 전략을 취한다.

心은 매우 특수한 존재이긴 하지만 氣 바깥에 있지는 않다. 心은 생성이고 주체성이다.

동북아사유에서 생성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氣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虛明하며, 각종 기능을 한다. (여기서 虛는 비었다는 의미보다는 투명하다는 의미이다.)

주희는 心의 차원을 性情으로 보며, 이 점에서 장재의 “心統性情”의 전통을 따른다.

##### ▲심(성과 정)

- 1) 性→이성, 기의 바깥에 있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기를 초월한 것,  
仁義禮智(인→사랑, 의→정의, 예→코드code, 지→지식)  
⇒ 심미성이 없다.→ 서구와는 다른 점  
本然之性

- 2) 情→감정, 氣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氣質之性

그러나 그는 도덕형이상학의 근거로서 性을 실체화한다. 性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선형적 조건으로서 곧 仁義禮智이다. 그것은 원리상으로는 氣를 초월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性은 氣와 함께 있으며 때문에 本然之性和 氣質之性으로 구분된다.

未發의 性이 본연지성이라면 已發의 성은 기질지성 즉 情이다. 주희는 이런 구도를 體用論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理氣論과 性情論이 정합적으로 관계 맺게 된다.

##### ▲사단칠정[四端七情]

사단(四端)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 즉 선천적이며 도덕적 능력을 말하며, 칠정(七情)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표현되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을 말한다.

1) 사단은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 상편에 나오는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惻隱之心(측은지심)] , 자신의 불의(不義)를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羞惡之心(수오지심)] , 양보하는 마음 [辭讓之心(사양지심)] , 잘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 [是非之心(시비지심)] 의 네 가지 도덕적 감정을 말한다.

2) 칠정은 《예기(禮記)》의 〈예운(禮運)〉에 나오는 말로 기쁨 [喜] ·노여움 [怒] ·슬픔 [哀] ·두려움 [懼] ·사랑 [愛] ·미움 [惡] ·욕망 [欲] 의 일곱 가지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가리킨다.

왕수인은 주자의 주지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격물치지(格物致知), 거경궁리(居敬窮理) 대신 인간의 마음을 곧바로 밝혀 들어가는 양지(良知)의 사유를 전개했다.

#### ▶ 참고자료

왕양명 [王陽明, 1472~1528]

중국 명나라 중기의 유학자. 양명학파의 시초로 각처에 학교를 설치하여 후진 교육에 진력하였다. 이에 《양명문록(陽明文錄)》이 간행되었고 양명서원이 건립되었다. 양명학파로서 명대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기초가 확립되었다.

호 양명

본명 수인(守仁)

별칭 자 백안(伯安), 시호 문성(文成)

국적 중국 명(明)

활동분야 철학

출생지 중국 저장성[浙江省] 여요(餘姚)

이 때를 즈음하여 이래 동북아 사회에서는 인간의 개별성과 욕망을 긍정하는 여러 정후들이 등장하게 된다. ⇒ 이러한 정후들은 사회의 상층부, 지식인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하층부, 문화 예술의 세계에서 표현된다.

7세기 이후의 동북아의 학문은 고증학이었다.

漢學→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학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문이다. 漢대의 訓詁學

宋學→성리학. 중국에서는 송/원/명대에 발달.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일본에서는 에도막부 초기 시대

#### ▲다산 정약용

그러나 이런 경향이 철학적으로 표현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이 때의 학문이 고증학(考證學), ‘실학(實學)’의 경향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 때 (이미 낡은 것이 된) 인성론을 근거로 파고들어 근대적 인성론을 전개한 인물로는 대진, 정약용, 최한기 등을 들 수 있다. 핵심 인물은 정약용이다.

**동양에서 학문을 담지하는 계층의 성격, 동양학문의 전체 흐름 때문에 성리학적 인성론으로부터 근대적 인성론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새로운 인성이 도래했지만 그것은 문화로만 표현되었을 뿐 철학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으며 학문은 고증학으로 기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산 정약용이다.

## 철학사입문코스Ⅳ

### 제12강 2교시

#### ◆ 다산 정약용의 사상

주희에게서 性은 하늘이 인간에게 심어준 것이다.

“性者 人生所稟之天理也.”

다산은 稟이라는 말을 결정론적인 사고로 보고 비판한다.→자유 의지와 주체성을 강조

#### ▶ 참고자료

정약용[丁若鏞, 1762~1836]



1776년(정조 즉위) 남인 시파가 등용될 때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가환(李家煥) 및 이승훈(李昇薰)을 통해 이익(李瀾)의 유고를 얻어보고 그 학문에 감동되었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經義進士)가 되어 어전에서 《중용》을 강의하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假注書)를 거쳐 검열(檢閱)이 되었으나, 가톨릭교인이라 하여 같은 남인인 공서파(功西派)의 탄핵을 받고 해미(海美)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持平)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水原城)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徐龍輔)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병조참의로 있을 때 주문모(周文謨)사건에 둘째 형 약전(若銓)과 함께 연루되어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으로 좌천되었다가 규장각의 부사직(副司直)을 맡고 97년 승지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아 자명소(自明疏)를 올려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 후 곡산부사(谷山府使)로 있으면서 치적을 올렸고, 1799년 다시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그를 아끼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순조 1) 신유교난(辛酉敎難)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에 연루되어 강진(康津)으로 이배되었다.

그 곳 다산(茶山) 기슭에 있는 윤박(尹博)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문체계는 유형원(柳馨遠)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중농주의적 학풍을 계승한 것이며, 또한 박지원(朴趾源)을 대표로 하는 북학파(北學派)의 기술도입론을 받아들여 실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이것은 맹자의 생각을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비해 다산은 인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써 주자의 본체주의를 보다 행위론적 사유로 바꾸어 나가고자 한다.

⇒ 사르트르 식으로 말해서 “You are what you do” 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다산에게서 性은 心 속에 주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어떤 잠재성으로 이해된다.** → 그것은 일종의 경향tendency이다.

“性者 吾心之所好也” 성이란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이다.

이 경향이 仁義를 향한다고 본 점에서 다산은 유가의 전통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 경향은 잠재적으로는 “주어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산은 우리의 도덕적 勞力을 강조한다.

**다산은 우리의 마음을 지향성과 운동성을 통해 이해하며, 일정한 경향성을 통해 파악한다.** 다산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후회, 가책 등에서 마음의 본래 경향은 선을 향한다는 사실을 읽어낸다.

⇒ 이 점에서 다산의 사유는 악(惡)의 실체화가 존재하지 않는 동북아 사유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서양에서는 기독교에서 악의 실체화가 단적으로 나타난다.→사탄satan)

**다산은 인간의 성과 다른 동물의 성은 다르다고 본다.** 주희의 경우 성은 공통되나 정이 다르다. 그러나 다산의 경우 성 자체가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다산에게서 인간의 실존은 늘 도의와 기질의 갈등 속에 있다.**

“人恒有二志相反而竝發者”

인간이란 늘 두 개의 뜻이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함께 발발한다.

이 점에서 다산은 이황을 잇고 있다. 이 때문에 다산의 사유에서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는 누구에게서보다 절박하게 나타난다. **다산에게서는 本然을 먼저 상정하고 현실을 논하는 주희의 논의구도는 파기된다. 그에게는 이런 갈등 구도 자체가 본연이다.**

⇒ 이 점에서 다산은 주희의 선협철학/초월철학을 거부하고 경험주의적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산은 인간의 경향성을 善의 방향으로 잡음으로써 유교의 전통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최한기는 장재의 틀로 돌아가 기학의 구도 내에서 심을 이야기한다. 최한기는 경험주의적 태도를 보다 강화해 『신기통(神氣通)』에서 감각기관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한다.

⇒ **최한기에게서 인간의 마음은 이미 근대성의 문턱을 넘고 있으며, 19세기 철학 특유의 진보주의적 뉘앙스로 가득 차 있다.**

1) 현대에 들어와 현상학 전통은 주체성을 강조하는 근대 철학을 잇고 있다.

2) 이에 비해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프로이트 등에 의해 ‘무의식’이 발견되면서, 인간의 마음이란 이전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임이 밝혀졌다.

3) 아울러 자연과학의 발달은 마음을 유물론적으로 파악하려는 여러 경향들을 낳기도 했다.

⇒ 현대 사상과의 복잡한 연관 하에서 전통 사상의 핵심 인성론을 재구성해낼 필요가 있다.